

무더위 싸악... 책속으로 떠나는 피서



여름 휴가철 맞아 추리소설·슬릴러 잇단 출간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힐 정도다. 이런 날에는 추리소설이나 슬릴러를 읽는 것도 하나의 피서 방법이다.

휴가를 떠나는 이들이라면 한두 권 장편 소설을 챙겨가 휴가지에서 읽어도 좋다. 잠시 일상을 떠나 장르소설에 집중하고 나면 어느새 무더위는 저만치 물러간다.

스릴러와 추리 소설은 스피드하고 장면 전환이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몰입도가 높아 한번 책을 볼 땐 끝까지 읽게 만든다.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체가 군데군데 놓여 있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미스터리물이 잇따라 발간되고 있어 장르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장르소설이 꾸준한 인기다. 일본 추리소설계를 이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위험한 비즈니스'와 미야베 미유키의 '희망장'이 대표적이다. '위험한 비즈니스'는 출간되자마자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미스터리부터 서스펜스, 판타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문제작을 써온 작가다. 이번에 펴낸 '위험한 비즈니스'는 행방불명 사건과 낯선 여인의 등장을 매개로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무엇보다 저자 특유의 상상력에 기반을 둔 뇌과학과 수학의 신비로운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거듭된다.

국내에 많이 알려진 작가 미야베 미유키가 최근 펴낸 '희망장'은 서민 밀착형 탐정이 주인공이다. 소심한 편집자 출신의 스키부라 사부로는 도쿄의 낡은 건물에 탐정 사무소를 차리고 뽀소니, 단칸계 사기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 첫 의뢰인은 이웃의 친한 아

일 작가들 책 베스트셀러 랭크

여성 주인공 '가정 스릴러' 강세

김용태 작가 '운석 사냥꾼' 주목

주머니. 딸에게 평생 모은 돈을 빼앗겨 가난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동네 할머니가 근방에서 목격되는데 생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부유한 자립이다.

B. A. 페리스의 데뷔작 '비하인드 도어'는 남편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한 소설로 굿리즈 최고의 데뷔 소설상과 최고의 스릴러 소설상 후보에 올랐다. 책과 그레이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다. 남편 책은 승률 100%를 자랑하는 가정 폭력 전문 변호사로, 잘생긴 외모까지 갖춘 남자다. 그러나 책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에게는 악의 요소가 숨겨져 있다.

근래의 스릴러물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또는 여성을 매개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결혼과 가족제도에서 파생된 상처와 아픔이 스릴러물의 주요 모티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승일 고즈넌이엔티 이사는 "스릴러의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첩보나 법정스릴러 중심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스릴러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이를 일컬어 '가정 스릴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정 스릴러'에서 여성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는 남편이나 직장상사, 스토커 등이 있다"며 "여성 작가들도 많이 등장했고, 이와 맞물려 이러한 스릴러물을 찾는 여성 독자들도 예

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작가의 스릴러물도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전직 판사로 여덟 권의 장편소설을 출간해, 장르문학 독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온 도진기 작가가 대표적이다. 올해 2월 공지를 떠나 변호사로 전직하 도 작가는 '악마의 증명'을 펴냈다. 밀실 살인과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자살, 쌍둥이가 모두 용의자인 사건 등 특이한 상황을 소재로 한 소설이 수록돼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12) 출신 김용태 작가가 펴낸 '운석 사냥꾼'도 눈여겨볼 만한 스릴러물이다. 소설은 고향으로 돌아온 희령이, 딸 별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으로 시작된다. 그 날 아침은 운석이 떨어진 다음날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기록이 별이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저수지. 의붓아버지인 면수도, 녹장 대저를 하는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은 별이가 아니라 악몽 같은 16년 전 화재 사건의 흔적뿐이다. 그사이 남편 면수는 자꾸만 성급성급 그녀의 비밀에 다가간다.

근래에는 역사를 소재로 한 스릴러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정연 작가의 역사스릴러 소설 '밀주'는 영조시대 금주령과 맞물린 밀주전쟁을 다룬 작품이다. 영조 금주령 시대의 대표적인 밀주 조직 검계를 포칭하고 우의정의 비호 아래 막대한 부를 축적해나간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던 영조의 밀명령으로 검계와 우두머리 표철주를 잡기 위한 밀주 특별수사대 규란방이 만들어진다.

추리소설과 미스터리 소설은 계속해서 출가될 것이다. 윤승일 이사는 "일본의 미스터리와 스릴러물은 보편적인 만큼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르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독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염원 담은 '겨울판타지' 강원도립예술단 11일 2부 문화전당 순회공연

무용단·관현악단 3부 공연

강원도립예술단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11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극장 1에서 순회공연 '겨울판타지'를 진행한다.

강원도립예술단은 '겨울판타지'를 제작해 1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0월20일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등 3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할 예정이다.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공연에서는 강원도립무용단이 창작무용 '겨울 약속'을 선보인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세인 겨울철새 두루미와 겨울의 상징 눈의 만남을 주제로 한 무대가 펼쳐진다.

2부에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이 출연한다. 국악가요 '속대머리'와 '너영나영', 그리고 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 '본(本, Born)'이 '사물놀이-한울림예술단'과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3부 공연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도립무용단의 합동무대다. '축제의 노래-우리 모두 함께, 강원 평창으로'가 울려 퍼지며 공연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휘는 정기운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안무는 윤혜정 강원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가 맡았다.

공연은 약 80분간 진행되며 만5세 이상 관람가능하다. 강원도립예술단 공식카페(cafe.naver.com/artgwd)에서 사전예약 후 공연 당일 티켓을 수령하면 된다. 전석 무료. 문의 033-249-5325, 033-251-441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박형규 작 '2016-07'

예술작품으로... 병뚜껑과 헌옷의 화려한 변신

화순 다산미술관 9월 14일까지

박연숙·박형규·채지윤 3인전

화순에 위치한 다산미술관은 업사이클아트 기획전 'Re-Art_박연숙, 박형규, 채지윤 3인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업사이클아트는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적 가치를 입혀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작가들은 특히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화순지역 아이들과 멘토링을 구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폐자원을 활용한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박연숙 작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조각, 헌옷 등 버려진 오브제를 활용하고 작품에 아이들 음성을 입힌 '그물망 이야기_별이 빛난다'를 선보인다.

박형규 작가는 예술의 순수한 즐거움을 탐색한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버려진 전자기기 부품, 병뚜껑과 같은 일상의 작은 소품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꿈꾸는 세계를 섬세하게 풀어냈다.

채지윤 작가는 버려진 자개장롱에 칠과 자개를 덧입히는 작업을 통해 유년기 시절 기억을 이미 지화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각 작가들과 협업한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유패한 발상을 담은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1-371-34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두막을 짓자'... 담양 대담미술관 어린이 건축학교 12일 개교

담양 대담미술관은 오는 12일 어린이 건축학교 2기 '오두막을 짓자'를 시작한다. 아름다운 담양의 자연 속에서 건축을 통해 자신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예술 프로그램으로 광주·전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건축, 생태-은신처, 동물과 인간의 행동 ▲건축, 경제-집, 땅과 사회적 요인 ▲건축, 수학-신체는 자, 측정 및 비율 이해 ▲건축, 사회, 기술-협업, 함께 세우는 오두막 ▲건축, 예술, 사회-확장, 꾸미고 이웃과 연결하자 등이다.

대담미술관 홈페이지(daedam.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8만원(재료비 포함), 개별 1일 단기체험은 3만원(재료비 포함), 문의 061-381-00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대담미술관이 진행한 제1기 어린이 건축학교 모습.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수영장

노래방 한식당